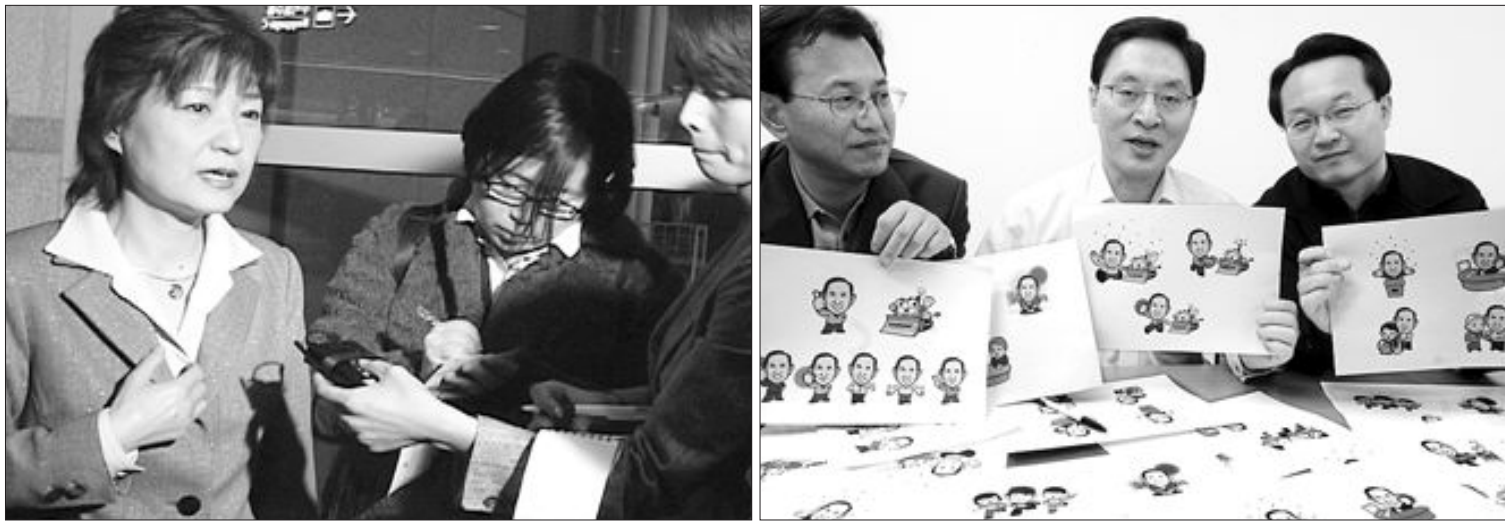


‘이명박 위증 교사’ 폭로... 李-朴 검증공방 2라운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검증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친 뒤 19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19일 오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정두언(가운데) 의원과 특보단이 이 전 시장의 캐리커처 선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면전 확산... 한나라 분열로 가나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간 검증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15대 총선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시 비서관으로 이 사건을 폭로했던 김유찬씨가 "이 전 시장측이 공판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교사하면서 그 대가로 1억2천500만원을 줬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다.

출간할 예정이며, 이 전 시장 측의 대응수위를 봐 가며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질 사기극' vs '검증 필요'=설 연휴를 앞두고 터진 김씨의 '폭로'는 이 전 시장을 둘러싼 검증 의혹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이 전 시장 캠프는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2002년 추악한 공작정치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평가절하했다.

동'이란 제목의 이메일 발송 시점은 이 전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김유찬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시장이 자신에게 위증교사와 살해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몇시간 후인 지난 16일 오후 11시경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의 팬클럽 모임인 '엠비(MB)연대'의 백두원 사무국장은 "최근의 잇단 폭로전을 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것은 팬클럽 수준에서 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선 전 '분열' 우려 고조=10년만의 정권 탈환을 노리는 한나라당이 가장 열려하고 있는 것은 경선 전 '분열'이다. 대선후보 '박'의 지지율 합계가 70%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李)-박(朴)'간 균열이 생길 경우 '다 잡았다'고 생각해 온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李 "저질 사기극" 박 "검증은 필요"

박사모, 회원들에 '李 검증' 총동원령

인 공격에 나서 접입가경을 치닫고 있다. 박 전 대표의 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이 전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당에 제출했다가 '무가치' 판정을 받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검증 파동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리포트' 새로운 폭로=김유찬씨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 측이 (내가 이 전 시장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하는 대가로 주기적으로 나눠서 1억2천500만원 상당을 제시하면서 위증 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자신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98년 지방선거 기간에 이 전 시장이 '제3자 화법'을 통해 살해 협박도 했었다는 주장까지 했다.
김 씨는 조만간 이 전 시장의 도덕성 문제를 담은 '이명박 리포트'란 회고록 성격의 책을

기하면서 이 사안을 계기로 검증 문제가 공론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박 전 대표는 김씨의 주장과 관련 "검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답이 선택할 일"이라며 "그러나 (검증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사실을 잘 모르게 된다. 내용에 대해서 하찮은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의 팬클럽 '박사모'가 이 전 시장과 관련한 '의혹' 전파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박사모에 따르면 '박사모 운영자'는 "2007년 2월 16일 21시 40분을 기해 대한민국 박사모 초진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대한민국 박사모 총동원령 발

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선 전 한나라당의 분열 가능성을 예측한 응답이 5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별로는 한나라당(54.7%), 이명박(60.4%), 박근혜(52.1%) 지지층에서 분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한나라당 지지 유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분열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9일 "당시 수사는 충분히 잘 됐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주 의원은 이날 "내가 당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 관한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만큼 잘 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밝혔다.

盧 "진보진영 이전 달라져야"

참여정부 매도 최장집 교수 간접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지난 17일 게재한 청와대 브리핑 글에서 "참여정부를 매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진보진영의 학자 한 분"으로 지칭된 학자는 고려대 최장집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 글에서 "참여정부가 진보 진영의 비주류라서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라고 말머리를 꺼내면서 "오래 전 저는 어느 모임에서 진보진영의 학자 한 분에게 '나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라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을 했던 일이 있다"며 "지금은 참여정부를 매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 분은, 그때 '그럴 것'이라고 상당히 힘주어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그런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 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 글에서 "진보진영의 학자 한 분"의 실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장집 교수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 정치학계에서 진보적 흐름을 대표해온 최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노 대통령 당선자 시절 임시사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지난해 9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참여정부는 무능력과 비개혁 때문에 실패했으며, 실패한 이

상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으로 정권을 넘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지를 펴서 진보진영내 논란을 촉발시켰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에 대해 "처음부터 개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비전, 아이디어를 가졌던 리더나 정치세력이 아니었다"며 노 대통령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개혁 리더가 아니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 게재 글에서 "신문에서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분들의 논쟁을 보면서 난감함을 느낀다", "학자는 말하는 사람이요 집권한 정치인은 실행을 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제약이 없지지만 실행을 하는 사람은 상한의 재량을 단 하나도 도의시킬 수 없다"고 밝힌 진보학계내 논쟁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작성했음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를 방문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민주가족 합동세배식에 참석했다. 정 전 의장 옆으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태홍(무소속) 의원,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휴면계좌 자금 봉사기금 활용"

강운태, 100만서명운동 착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전 의원이 이끄는 정치적 봉사단체 '빛나는 대한민국연대'가 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거리캠페인에 나섰다.

서명운동에 포함된 구체적 내용은 ▲금융권 휴면계좌의 봉사기금 활용 ▲연세복지시설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예산 지원 ▲봉사마일리지 제도의 법제화 등. 빛나는 대한민국연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13개 광역분부와 150개 지부에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서 귀성 및 귀경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연대는 또 100만인 서명을 목표로 지부별로 서명운동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빛나는 대한민국연대는 지난 15일 서명취지문을 통해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부터 필요한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봉사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빛나는 대한민국연대는 뜻을 함께하는 단체 및 국민과 더불어 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경제철학 서민 위한 것 아니다"

정동영, 광주서 설연휴 봉사활동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9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며 광주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설 연휴 기간 광주시 서구 용두동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전 시장의 경제철학이 특정 계층과 충수를 위한 것은 아닌지, 개발독재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제철학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전 시장은 20대 때

부터 특정 재벌과 특정 충수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라며 "이 전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대우하 개발계획은 결국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어 "여의도를 벗어나 서민 속으로 파고드는 실생활 현장정치를 통해 통합신당의 정체성을 몸으로 제시하겠다"며 당결과 및 당내 중진들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 YMCA에서 열린 합동세배 행사에 참석한 뒤 20일 오전 상경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수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전국수석 배출 3월2일 첫진도 개강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주도청 앞 정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비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새롭 행정고시학원 361-8111

희소식 수료 합격과정 기량주부 실업자 지방입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국가직/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9급공무원 김종규 행정학 문제풀이 특강 공무원 합격, 쉽고 빠르게!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지방직공무원 800여명 2007년 정기간